원광대, 제15회 학습공모전 시상식 개최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는 재학생들의 학습노하우 공유 경험을 통해 자기 주도적 학습법 체계화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 학습사례 확산을 위해 실시한 '원대생의 학습노트 대~방출! 제15회 학습공모전' 시상식을 지난 7일 학생지원관에서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교육혁신원 교수학습개발과에서 주관한 이 공모전은 최종 심사 결과 △최우수상 서바른(간호학과 2학년), △우수상 국승민(국어국문학과 3학년), 김수연(복지보건학부 3학년), 정솔(간호학과 3학년), △장려상 공정현(화학융합공학과 1학년), 김승환(기계공학과 2학년), 김지현(작업치료학과 1학년), 양성현(역사교육과 2학년), 이재영(한약학과 1학년) 학생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서바른 학생은 "한 학기 동안 계획하고 실천했던 나만의 학습 노하우를 공모전에 응모하면서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 의미가 있었는데 수상까지 하게 돼 기쁘다"며, "다른 학우들도 자신의 학습법을 성찰하는 시간을 통해 공부에 몰입하는 재미를 느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15회째 진행된 원광대 학습공모전은 대학혁신사업의 일환으로 한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진행하는 Win-win(Wonkwang in ? win) 학습법 시리즈 프로그램 중 하나로 성적 향상을 위한 학습전략, 노트 필기, 보고서 작성법, 팀프로젝트 또는 스터디 활동 노하우 등을 주제로 에세이를 작성한 후 응모하는 프로그램이다.

공모전을 주관한 교수학습개발과 최미옥 연구교수는 "자신의 숨은 학습 노하우와 대학생활 성공 사례를 공유해준 참여 학생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임경채 호원대 자동차공학과 교수, 신지식인 인증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 미래자동차공학과 임경채 교수가 제40회 신지식인 인증식에서 과학기술 분야에서 신지식인으로 선정됐다.

지난 8일 오후 2시 서울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40회 신지식인 인증식이 개최되었다.

신지식인 운동은 지난 1998년 미래사회에 대한 준비의 한 축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창의적인 발상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이를 정보화시켜 사회적으로 공유한 사람들을 신지식인으로 선정한다. 현재까지 7,100 여명의 신지식이 선정됐다.

호원대학교 미래자동차공학과 임경채 교수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혼자 전북지역의 중소기업들과 지난 10년 동안 정부 및 지자체 연구과제, 공정개선, 시제품 제작, 특허 기술이전, 연구용역 등으로 150억 원 이상 연구비를 수주하였으며, 신제품의 사업화를 통한 기업의 매출액 향상과 특허 기술이전, 연구용역으로 대학의 연구비 수주 등의 실적을 인정받아 제40회 신지식인으로 선정됐다. /군산=김판곤 기자

중산신협, 사랑의 김장나눔… '온정의 손길'

전주중산신협(이사장 라야온)는 걸쳐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 소재 선너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지난 7일, 8일 양일간 진행했다.

'사랑의 김장나눔'은 전주중산신협이 선너머종합사회복지관에 김장 비용 전액을 후원하고 김장김치를 담그는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내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9회째 전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전주중산신협 임직원, 해바라기 봉사단, 둥글레 봉사단' 등 각 부처 봉사자 40명이 김장김치 350포기를 담았다.

이와 함께 신협사회공헌재단과는 '온세상 나눔캠페인'을 동시에 진행하며, 난방용품(이불, 전기요 등)을 지원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김영태 기자

완주골 청춘 합창대, 대상 수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연극 · 합창 컬래버 호평

완주골 청춘 합창대가 '2022 문화예술교육축제'에서 최고상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했다.

9일 재단법인 완주문화재단?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완주문화재단이사장 유희태)은 논산문화관광재단에서 개최한 문화예술교육축제에서 완주골 청춘 합창대가 감동 깊은 공연을 선보여 최고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문화예술교육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관해 전국 문예회관 우수프로그램 발굴 및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확산을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완주골 청춘 합창대는 완주군 시니어들의 여가 문화생활을 위해 만들어진 합창대다.

성과발표로 이뤄진 축제에서 완주골 청춘 합창대는 누군가의 딸 이였던, 누군가의 엄마였던, 그리고 본연의 나를 보여준 짧은 연극과 함께 합창공연을 시작했다.

연극과 공연의 컬래버로 객석에게 울림을 선사했다. 공연 연출력과 시니어 합창단의 감동의 하모니가 어우러져 큰 박수를 받았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에서 갈고 닦은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같아 뿌듯하다"며 "완주골 청춘 합창대의 열정에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완주군민의 문화예술 교육이 다양하고 꾸준히 이루어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중복기자

전북대병원 교수팀, 코골이가 녹내장 높인다… 연구결과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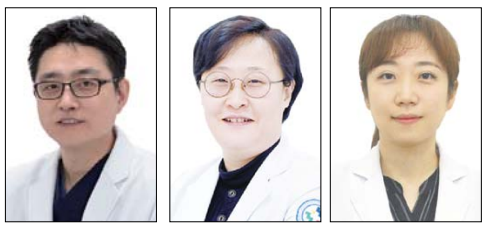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이비인후 김종승, 안과 이태은-이행진 교수팀이 코골이(수면무호흡증)가 녹내장 발생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에 지난 9일 발표했다.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표본 코호트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이 녹내장의 발생을 높이며, 그 역으로 수면무호흡증 치료를 통해 녹내장 발생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했다. 이 논문은 미국 수면의학회에서 발행한 세계적 학술지인 임상수면의학저널(Journal of Clinical Sleep Medicine) (Impact Factor 4.324)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코골이(수면무호흡증)로 인해 '산소공급저하, 이산화탄소 배출'이 잘 이뤄지지 않으면 수면 리듬이 깨져 수면장애, 피로감, 주간졸음증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고혈압, 당뇨, 부정맥, 허혈성 심장질환 같은 만성질환과도 연관성이 있으며, 성격변화, 성 충동 감소, 발기부전, 인지기능 저하, 기억력 장애와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직 개방형 녹내장에 대한 연구결과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녹내장은 시신경에 이상이 생기면서 시야가 점점 좁아지고 시력까지 떨어지는 질환이다. 만성 녹내장은 조기 진단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실명을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하며, 치료받지 않은 녹내장은 서서히 진행해 시야결손과 함께 말기에 이르러 실명하게 된다.



김종승 교수 이태은 교수 이행진 교수

녹내장 치료의 목적은 이미 손상된 신경은 다시 좋아지기 어렵기 때문에 빠른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녹내장과 폐쇄성 수면무호흡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고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김영태 기자

전주대 창업경영금융학과 교수와 재학생 장학금 기부

전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 창업경영금융학과 교수 2명과 재학생 2명이 장학금 500만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기부에 참여한 유미경 학생(사회적기업 (유)천해 대표)은 "남편과 함께 대학을 다니며 경영에도 큰 도움이 됐고, 대학원 진학 등 더 큰 꿈도 생겼다"며 "성인 재직자에게 배움의 기회를 준 미래융합대학은 우리 부부에게는 너무 큰 행운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올해 편입한 박교식 학생((주)고려디자인 대표)은 "디자인씽킹, 뉴로마케팅, 넛지설계 등 배움이 현업에 크게 도움이 됐다"며, 학과 학생들을 위해 매주 밤 시간을 이용해서 3D프린터 동아리 학생들에게 프로그램 사용법을 교육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손현주 교수는 "기부에 동참하게 돼 기쁘다"며, 본인이 번역 한 책 '콤뮤니타스 이코노미'를 총장에게 선물하기도 했다.

박진배 총장은 "행복 특강을 자주 다니는데 잘 참고하겠다"며 "장학금은 대학 발전을 위해 잘 사용하겠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김제교육지원청, 지평선 학교-마을 교육박람회

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현정)은 지난 7일 실내체육관에서 '지평선 학교-마을 교육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지역 마을교육공동체가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관내 교사들에게 안내하는 자리로, 내년도 학교교육과정 편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제 지역 28개 체험기관 및 관내 유·초·중·고 400여 명의 교직원이 참여했다.

이 박람회는 전북도청의 온마을 행복기금으로 운영, 김제시와 김제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교육협력으로 이뤄졌다.

김현정 교육장은 "김제의 개성있는 공동체와 학교가 만나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서 학교와 마을에게 의미있는 시간이 됐다"면서 "지역과 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순창군청 소프트테니스팀, 복지시설 이웃돕기

순창군청 직장운동경기부(실업팀)가 지역 내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이웃을 돕기 위해 나섰다.

남자 소프트테니스팀 지도자와 선수 7명이 9일 순창군 인계면에 위치한 하늘빛그룹홈에 방문하여 이불 털기, 아동생활공간 청소를 도왔다. 또한 팀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 100만 원을 기탁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달했다.

2012년에 창단된 순창군 소프트테니스팀은 매년 사회단체에 성금을 기탁해왔는데, 올해가 일곱 번째로 알려졌다.

홍정현 소프트테니스팀 감독은 "순창군 소프트테니스팀은 평소에도 학생운동부와 동호인들에게 재능나눔봉사를 통하여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자원봉사와 기탁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주위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무형유산원, 공연문화예술 6개 관계기관 협약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이경훈)은 9일 국립극단에서 6개 관계기관과 공연문화예술자료의 수집?보존과 공동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6개 기관은 무형유산원을 비롯해 국립국악원(원장 김영운), 국립극단(단장 겸 예술감독 김광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 국립중앙극장(극장장 직무대리 김진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종관) 등이다.

이날 6개 기관은 상호 간의 협력관계 구축과 소중한 공연문화예술 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6개 기관은 △공연문화예술분야 아카이브의 공유 및 전시·교육·연구·정책개발 △아카이브 자원의 활용가치 극대화 및 협약기관과의 공동서비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아카이브 운영 및 이에 따른 정책·제도개선 노력에도 협력키로 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전주MBC 업무협약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8일 전주문화방송(MBC)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진배 총장과 김한광 대표이사를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디지털 콘텐츠 산업과 전통문화산업 밸리 사업 관련 콘텐츠 제작 및 발굴, 사업 확장 및 홍보, 시설·장비 공유·교육 및 인적자원 교류 등에 대해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박진배 총장은"이번 협약으로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 개발 실현과, 상상력을 갖춘 디지털 휴머니티 인재 양성에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하반기 전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은 지난 5~6일 장수군 대곡관광지 일원에서 '2022 하반기 전 직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 1일차 교육에는 ESG 경영 관련 교육과, 직원 고객만족 역량 강화을 위한 CS 교육 등을 진행했다.

특히 도내 동부권 지역의 문화예술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 소멸 위기 대응 관광자원 개발 및 도시재생'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장수군 문화체육관광과 직원이 함께 참여해 다양한 시각으로 장수군 문화예술 및 관광 분야 지원 현황 및 문제점에 관해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다. /장은성 기자

진안군청 광장 따뜻함이 가득… 온기담은 불빛

진안군 군청 광장이 따뜻한 온기담은 불빛으로 관광객 및 주민들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

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지친 군민들을 위로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2023년을 환하게 비추기 위해 군청 광장에 경관조명을 설치했다.

광장 느티나무 주변 및 조경수, 가로수 등에 은하수전구와 소나무 스노우폴 등 각양각색의 LED를 활용해 따뜻함, 건강,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 장식했다.

경관조명은 내년 1월까지 광장을 밝힐 계획이며 운영시간은 일몰 시~오후 11시다. /진안=우태만 기자